



[산업] 정의선의 선택과 집중 현대제철 이사 사임 미래車 올인 06



Economy

코스피	2076.77 (-26.84)	코스닥	654.63 (-2.32)
금리 (우대금)	1.14 (-0.04)	환율 (원/달러)	1216.90 (+6.60) (26일)

위기때마다 우리는 하나였다... 힘내라! 대구·경북

| 데스크 제언 | 윤희중 산업부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구·경북이 졸지에 '공공의 적'이 돼 버렸다. 엄밀히 말하면 대구·경북은 피해자다. 그런데 마치 대구·경북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 폭력 당한 피해자에게 '왜 당했냐'고 책임을 묻는, 2차 피해를 주는 격이다.

지금 국민은 가뜰이나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진정시켜야 할 당·정·

청이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기쁨을 부었다. 여당 입장에서 그 지역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서로 반목하고 분열을 조장할 때가 아니라 지혜를 모으고 합심해 묘수를 찾아야 할 때다. 이런 상황을 자신들의 세를 불리려는 기회로 삼는 집단들도 있기 마련이다. 유라시아그룹 회장인 이안 브레머는 '우리 대 그들'이란 저서에서 '우리'와 '그들'을 나눔으로써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들은 항상 뭔가 '꺼리'를 찾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나 피해자들을 '그들'로 규정하는 세력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 한 동안 잠잠했던 지역갈등, 진영갈등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번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가릴 것 없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미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확산하면서 지역 감염 방지에 돌입했다. 이런 움직임을 격려해야 한다.

국민 모두는 코로나19가 국가적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련을 각오해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 대신, 정부와 지자체는 세제혜택이나 지원금 보조 등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덜기 위해 건물주들에 대한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엔 불이익이 없도록 보살펴야 한다. 모든 중소기업·자영업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겠지만 최대한 세심한 정책을 펼쳐

야 한다. 기업들은 지역사회 상생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매출이 끊긴 음식점을 위해선 미리 음식값을 결제하고, 상황이 진정된 이후 회식이나 식사를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아이디어 중 하나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도 알려야 한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비한 2차 의료, 3차 의료대책이 시급하다.

/yhj@metroseoul.co.kr



길거리 소독하는 방역 요원들

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요원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혈 대신 외부영입... 투명경영 활짝

SAMSUNG 삼성의 변화

<상> 거버넌스 고도화

이재용 부회장, 준법·책임경영 실천 준법감시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이사회 의장에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삼성전자가 그동안 고집했던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기업 내 수직적 문화도 수평적으로 바꾸는 등 구성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3회에 걸쳐 삼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삼성전자는 최근 준법감시위원회와 이사회에 각각 외부인사를 영입하면서 준법 경영과 책임 경영을 위한 양날개를 갖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강조한 투명경영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5일 출범한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



박재완 삼성 이사회 의장

삼성 준법감시위에 삼성전자는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선임하며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의 준법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기구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의 준법경영을 관리한다.

준법감시위가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

는 방식이다. 준법감시위는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 부정청탁뿐 아니라 승계 문제까지 관여할 수 있는데 이는 이 부회장의 의지 없이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첫 공판기일에서 "실효적 준법경영 체제를 확립하라"고 주문한 뒤 4개월여 만에 후속대책 차원으로 나온 것인 만큼 향후 역할이 기대된다.

준법감시위 외부위원은 김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노사관계 등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왔던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법조계, 학계 인사들은 기업 범죄 수사나 공정거래·지배구조 연구 등 이력이 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 의장도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8면에 계속>

/구서윤 기자 yuni2514@

코로나 확산에 항공업계 위기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 불발설

이스타 항공 실사 늦춰져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며 항공업계 전체가 위기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인수에 따른 효과는 고사하고 인수 자체도 가능할 지 불투명해졌다 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이스타홀딩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권을 발행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매매계약(SPA)

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9일까지 마치기로 했던 SPA가 여러번 미뤄지며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제주항공은 1월 9일까지였던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한을 지난해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1월 중'으로 연기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다시 '2월 중'으로 재공지해 두 달 넘게 이스타항공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월이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에 대한 실사가 늦춰지는 배경으로는 심각한 부채비율, 엄청난 항공기 리스료 등이 꼽힌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코로나19 관련기사> 2~4, L3~L7면

코로나 비상 속 한은 금통위... 이주열 선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산하며 분위기가 달라진 것.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리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1.0%를 기록하게 된다. 한은은 로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27일 오전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산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00%로 인하할 것이라 전망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1.00%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전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금통위는 2003년 5월 사스 사태 당시 기준금리인 콜금리를 4.25%에서 4.0%로 내렸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하던 2015년 6월에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

세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지속 기간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경제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으로 금리동결 기조는 강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자 금리인하론으로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5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